

한국노년문학과 말년성(lateness)의 지형학

- 노년문학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논의 확장을 위한
시론(試論)

박 대 현*

차 례

- | | |
|---|---------------------------------------|
| 1. 서론: “고령화 사회” 너머의 노년
문학 | 3. 육체와 정신의 ‘말년성’에 따른 노
년문학의 4가지 양상 |
| 2. 노년문학연구에 작동하는 생명관
리권력(biopower)과 대안 개념으
로서의 말년성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노년문학 연구가 사회학의 하위학문인 노년학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노년학에 기댄 노년문학 연구에서 노년은 푸코의 ‘생명관리권력’(biopower)의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은 신체적 연령이라는 단선적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말년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말년성’

* 동아대학교 강사

은 죽음을 마주보는 정서적 개념으로서 나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노년’을 청년과 대별되는 타자의 위치가 아니라, 청년과 노년을 포괄하는 실존의 위치로 옮겨오도록 한다.

말년성의 지형학은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① <육체=청년> & <사유=청년>, ② <육체=청년> & <사유=말년>, ③ <육체=말년> & <사유=말년>, ④ <육체=말년> & <사유=청년>.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축이 교차됨으로써 만들어진 4가지 유형은 한국 노년문학을 조망할 수 있는 ‘말년성’의 지형학을 구성한다. 이것은 노년을 타자화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고안된 지형학이면서, 근본적으로는 노년문학의 좁은 범주를 벗어나 ‘말년성’이라는 죽음의식과, 그것에 반응하는 문학의 정신성으로써 한국현대문학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론(試論)에 해당한다.

주제어: 말년성, 노년, 한국노년문학, 죽음, 청년, 노년학

1. 서론: “고령화 사회” 너머의 노년문학

노년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노년’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노년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로 설정된 노년의 최저 연령선¹⁾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 왔다. 연령이 절대연령, 육체연령, 심리적 연령, 사회적 연령, 그리고 문화적 연령 등이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규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준은 출생년도에 따른 산술적 연령이다.²⁾

1) 대한노인회 가입이 60세부터 가능하고 노인복지법(1981)상의 노인규정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다. 서병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3, 3-6쪽.(최명숙, 『한국 현대노년소설 연구』, 경원대박사논문, 2005, 12쪽 재인용)

2) 현재 노인의 연령을 규정한 법적 문헌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에서 최근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년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노년문학 또한 그러한 개념 규정의 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노년문학이 마치 사회학의 분과학문으로 종속편입되는 양상마저 발견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에 대한 가족학, 심리학, 사회학적 관심이 문학으로 전이된 결과로서 노년문학이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노년문학 연구물들은 사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증상의 관점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³⁾ 문학이

노인의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의 각종 복지 정책 시행의 연령 기준을 만 65세로 잡고 있어서, 사실상 65세가 노인 연령 기준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www.law.go.kr]) 이 기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2017년 현재 52년째 유지되고 있으나(한경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최근에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연령의 심리적 기준이 65세 미만 3.7%, 80세 이상 15.3%, 70-74세 46.7%, 75세 이상 31.6%로 나왔으며, 이 통계에 근거한 평균적인 노인 연령은 71.7세가 된다. 국제연합의 노인 연령 상향 권고는 더욱 과격적이어서 18-65세는 청년(young people), 66-79세 장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 장수노인으로 분류한다. 최근의 노년 연령은 매우 극적인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 수명의 비약적인 연장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최근 과학자와 노년학자, 그리고 자본가들은 인간의 영생을 확신하고 있을 정도다. 예컨대 ‘구글’은 벤처투자사 ‘구글벤처스’를 통해 생명연장 프로젝트와 생명과학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불멸이 인간의 허망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노년의 개념은 신체 연령계 기반한 과거의 틀에서 이해되기란 힘든 일이다. 따라서 20세기와 21세기의 노년은 수명의 비약적인 연장과 관련하여 다른 틀에서 사유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개념의 공통적인 속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화의 정도다. 결국 노년 개념은 노화를 촉진하는 연령에 기반하되 육체와 정신의 ‘쇠퇴’를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나, 『65세 노인? 시대 맞춰 ‘노인 기준’ 재정의 해야』, 『여성신문』, 2017.04.13; (<http://www.womennews.co.kr/news/113317>) (검색일:2017.12.5); 장철준·김주현,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구』, 『법학논총』 40권4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16, 44쪽; 유발 하라리, 김명주 역, 『호모 테우스』, 김영사, 2017, 43-45쪽.

3)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최선호, 『현대 노년소설 연구』, 아주대박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증상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감성적 직관의 예술 양식이라고 할 때, 사회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문학적 출현을 거듭하고 있는 노년의 형상과 사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년문학이 노년소설에서 출발했던 것도 소설이 노년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노년소설의 개념은 류종렬에 의해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정의된 바 있는데,⁴⁾ 결국 산업화 이후 노년의 소외,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문제가 결합되어 노년문학이 관심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류종렬의 진술이 이미 암시했듯이, 노년소설이 한국근대문학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중시하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야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근대문학사 형성 과정에 내재한 한국문학의 특수성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년에 진입한 작가의 출현이 바로 산업화 시대와 겹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노년문학 출현의 필연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노년 작가의 출현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1960-70년대에나 가능했다. 노년 작가의 출현을 아무리 앞당긴다 하

사논문, 2017;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박사논문, 2005; 김보민,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인제대석사논문, 2012; 조춘희,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년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6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이현정,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 『한국시학연구』 제45호, 한국시학회, 2016;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화회, 2008. 예컨대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를 낸 최선호는 ‘노년서사’를 ‘가족문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노인의 자기 정체성 탐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조춘희 역시 노년시를 고령화의 관점에서 천착하고 있다.

4)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화회, 2008, 504쪽.

더라도 1950년대 이전으로 소급해 가기는 매우 힘들다. 유성호는 한국문학사에서 ‘노대가’의 모습을 보여준 문인들을 나열한 바 있는데, 박종화, 오상순, 염상섭, 이병기, 김동리, 서정주, 김정한, 김달진, 신석정, 박두진, 황순원, 김현승, 김광섭 등이다.⁵⁾ 이들 중에서 가장 빠른 출생이 1891년(이병기)이고, 가장 늦은 출생은 1916년(박두진)이다. 한국근현대사의 비극과 중첩되는 근대문학 형성기를 어렵사리 생존해 온 이들이 일반적 기준의 노년에 이르게 된 시기가 1951-1966년이거나 대략 그 즈음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폐허 복구가 긴급했던 1950년대를 지나 1960-70년대에 이르러 산업화로 인한 노년의 사회적 배제와 맞물려 노년에 대한 작가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근대문학 형성기와는 전혀 다르게, 노년에 도달한 작가들이 매우 많아진 사정도 노년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배경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노년문학은 1960-70년대 이후에나 가능해졌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론은 현상적 차원에서는 옳은 것이지만, 한국현대문학사의 심층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년문학을 지나치게 고령화사회와 관련지어 바라본 결과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 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노년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는 있으나, 노년문학의 심층을 헤아리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노년문학의 출현이 1960-70년대 이후에 가능했다는 진단은 결국 신체적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노년문학은 소외, 가난, 쇠락, 허무, 평정, 초월 등의 관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협소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의도치 않게 노년을 결국은 보건위생의 관점에서 타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의 인구 구성 변화(고령화)에 주목하는 관점을 벗어나 노년문학을 문학의 본질적 양상으로 파악하고 말년성(lateness)⁶⁾

5) 유성호, 『한국문학의 심층으로서의 노년의 시학』, 『문학·선』, 2013.여름, 18쪽.

6) 말년성(lateness)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개념이다. 'lateness'에 대해서 마이클 우드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

개념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한국현대문학의 유형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2. 노년문학연구에 작동하는 생명관리권력(biopower)과 대안 개념으로서의 말년성

노년문학의 역사적 구성은 노년학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노년학의 문제점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노년학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인구고령화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노화를 극복해야 할 ‘문제’(problem)로 인식”하는 경향을 띠면서 “고령화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과장, 왜곡”함으로써 결국 “노년의 삶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⁷⁾ 다시 말해 생산 집단에서 이탈한 60-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단일하게 규정된 ‘고령인구’, 그리고 이들로부터 비롯된 ‘고령화사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인구 고령화’ 위기담론에 대한 대응이 바로 노년학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위기담론은 푸코가 갈파한 근대의 ‘생명관리권력’(biopower)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푸코는 서구 근대의 18세기 이후 권력 기술에서의 중요한 혁신의 하나가 바로 ‘인구’를 경제적·정치적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구는 부(富), 노동력, 자원 사이의 균형으로 파악된 인구다.⁹⁾

그렇다면 일부의 비판적 성찰에도 불구하고, 노년학은 고령인구의 증

는 순간의 정서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이클 우드, 장호연 역, 『들어가는 글』, 에드워드 사이드,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마티, 2008, 10쪽.

7) 최은영·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권,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2012, 167쪽.

8) 김희경,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 『한국문화인류학』 제47집 3권,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 131쪽.

9)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나남, 2004, 29-31쪽 참조.

가에 따른 사회의 불균형을 통치하기 위한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 노년은 근대 동력학의 핵심인 무한한 생산과 진보라는 이데올로기를 멈추게 하는 위협한 인자(因子)이므로, 노년학은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담론과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복지 담론의 학문적 기초가 된다. 이러한 담론의 전제는 ‘노년=사회적 잉여’라는 무의식적 명제다. 장 보드리야르의 표현에 따르면 노년은 ‘제3의 시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노년은 “죽음 직전의 격리된 특수 부락이고 유예기간이며,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사”에 불과하고, 죽음을 이기고 연장된 삶은 “가산되고 축적될 뿐 교환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⁰⁾ 다시 말해, 노년학은 사회적 잉여로 간주되는 노년층이 사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담론의 일환이 되고, 이로써 노년은 타자화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노년학에 기대는 최근의 노년문학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년문학을 노년의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그것이다. 실제로 노년학은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문화예술을 노년의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노인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¹¹⁾ 최근의 노년문학에 대한 관심도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왕의 논문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문흥술은 “노인의 삶에서 문학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학 외적 측면, 그리고 노인 문제를 문학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학 내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년기에서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 나아가 문학 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 그리고 노년기

10) 장 보드리야르, 정연복 역, 『섹스의 황도』, 솔, 1995, 156-157쪽.

11) 윤혜진, 『노화의 정치경제학 이론(political economy of aging theory)을 적용한 노년기 문화예술 경험의 다학제적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2집,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5, 246쪽.

의 여가를 의미 있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노년문학이 노년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시키고 자존감을 고양시킨다고 해서 노년의 소외와 배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다면 노년문학은 의도와 무관할지라도, 좀 거칠게 말하자면, 사회적 잉여로서의 노년을 삶을 마칠 때까지 무통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목적이 될 수 있다. 노년문학에서조차 노년은 타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문학은 기껏 노년학, 노년심리학, 가족학, 혹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인구학에 종속되고 마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푸코식으로 말하자면, 노년문학을 ‘생명관리권력’의 근대적 판옵티콘 속으로 들어앉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문학, 농민문학, 분단문학, 환경문학은 모두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저항과 투쟁의 동력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지만, 노년학에 종속된 ‘노년문학’은 ‘생명관리권력’의 통증 처방으로써 단순히 ‘무통’(無痛)을 지향하는 경향을 드러낸다.¹³⁾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아통합’의 시기를 도식적으로 노년에 설정해 놓은 것을 환기해보는다면, 노년의 국가 관리가 정신분석학 담론 체계를 빌어 사실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문학, 농민문학, 분단문학, 환경문학의 대립항이 자본가와 제국이라는 뚜렷한 대립항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노년문학의 대립항을 쉽사리 규정하기 힘든 것을 생각해 보라.¹⁴⁾ 노년문학의 본질적인 대립항은 궁극적으로 죽음이다. 죽음

12) 문홍술, 『고령사회와 노인문학의 과제』, 『유심』 2014,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4, 5쪽.

13)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무통문명의 상태를 인간의 ‘자기가축화’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모리오카 마사히로, 이창익·조성윤 역, 『무통문명』, 모멘토, 2005, 13쪽.

14) 문홍술은 ‘노인문학’을 노동자문학, 농민문학, 분단문학, 환경문학 등과 마찬가지로 문학의 하위범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문학의 모든 하위범주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사회적 의미가 있을지라도 죽음 문제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년문학의 본질은 ‘죽음의 신경증’이다. 바로 이 때문에 노년학의 목표가 확률통계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진 ‘인구’를 국가의 재정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경제·문화 복지를 통해 ‘무통’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노년은 대부분 육체와 정신의 쇠퇴에 따라 사회적 의존성이 급증하는 잉여적 존재들로 이해된다. 특히 하층계급의 노년은 ‘노화’라는 불행의 징후가 전면화되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배제·고립될 수밖에 없다.¹⁵⁾ 이들 노년층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집약된다.

①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복지 재정의 문제

들은 대립항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노인문학’은 그 대립항을 찾기가 난망하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흥술 스스로도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글을 마무리한다. 문흥술, 앞의 글, 12쪽.

- 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년’이 연령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연령에 의해서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권계층은 보다 좋은 영양과 위생 상태로 인해 하층민에 쉽게 찾아오는 노년기를 보다 유예시킬 수 있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지라도 정치적·사회적 존경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구의 “상승하는 부르주아 계층은 노년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근대 혁명의 주역으로서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일종의 애국적 이미지를 부여받음으로써 노인의 권리와 복지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미국의 창건자들 역시 새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시도에서 노인을 건국의 아버지라는 표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자본가에게서 늙고 병든 노년의 이미지를 읽어내기란 힘든 노릇이다. 자본의 유무에 따라 노년층의 계층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 유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배계층의 노년과 하층계급의 노년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노년, 혹은 상류계층의 노년은 사실상 청년, 중장년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지님으로써 ‘노년’의 이미지를 불식시킨다. 시몬느 보파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1』, 책세상, 1994, 250쪽; 데이비드 G. 트로얀스키, 『제5장 18세기』, 팻 테인 편, 안병직 역, 『노인의 역사』, 글항아리, 2012, 277-298쪽 참조.

② 노년의 사회적 배제와 소외 문제

③ 노년의 정신병리학적 문제

노년층을 바라보는 ①의 관점은 국가 재정의 문제와 관련 있다. ①의 대응책은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위한 정책적 문제로 귀결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재정의 문제는 정년 연장, 출산 장려 등의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전혀 다른 인구 구성 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장기적인 추이 관찰에 기반한 보다 장기적 플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②는 윤리 문제와 관련되며, 여기서 노년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소수자’의 지위를 가진 사회적 존재가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청년, 혹은 중장년 중심의 사회를 노년이 파괴하게 된 사회적 변화를 내포한다. 때문에 노년의 인권과 복지라는 문제가 사회의 윤리적 의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③은 정신보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신경증’과 무관하지 않다. 노년의 허무와 무기력, 즉 우울의 감정에 대한 통제는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과제다. 인류의 문명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불안을 적절하게 관리(억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임박한 노년은 인류가 억압하고 있는 죽음의 징후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노년문학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또한 그러한 관심을 요청받고 있다.¹⁶⁾ 그러나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③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불안과 신경증은 노년의 본질적 증상이면서,

16) ②와 ③은 노년을 다루는 문학에서 보편적인 문제였으며, ①은 문홍술의 최근 진술에서 확인된다. 문홍술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연금 고갈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노인문학이 다루어야 할 가장 특질적인 영역이 바로 이 부분”, 즉 “젊은 세대가 노인 연금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홍술, 앞의 글, 12쪽.

인간의 보편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한 축적 욕망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장 보드리야르의 말을 환기해본다면, 근대의 자본주의의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영원한 청춘을 향한 강박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노년은 꺼림의 대상인데, 노년의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의 자아와 비슷하다는 사실¹⁷⁾에서도 이것은 확인된다. 인간은 노년의 집행유예를 인류의 진보로 간주해왔으며, 자신의 죽음 또한 미래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예시킬 줄 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노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그렇듯이, 퀴블러 로스의 저 유명한 인간 심리의 도식처럼 거부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다가 결국 우울에 빠진 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미래의 것으로 사유하는 정신적 기저에는 미래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견인하는 강박신경증이 자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미래의 노년을 자기의 것으로 견인하기도 한다. 노년과 죽음의 긴밀성으로 인해, 노년에의 불안의식은 죽음의 그것처럼 나이를 막론하고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죽음과 노년의 불안은 청년의 내면을 강렬하게 장악하기도 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노년과 죽음에 대한 억압이지만, 억압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무의식 속에 짙은 얼룩을 남긴다. 이 얼룩은 청년의 무의식에도 존재하며, 노년의 무의식, 의식, 육체에도 물론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얼룩을 생물학적, 사회학적 노년을 포괄하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말년성’(lateness)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이라는 연령적 규정 대신 ‘노인성’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들여와 “노인성 문학이란, 문학을 위해 노인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 노인성을 위해 문학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노년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¹⁸⁾ 즉, 노년문학은 노인복지와

17) 에드가 모랭, 앞의 책, 352쪽.

세대론의 관점¹⁹⁾에서도 사유될 필요가 있으나, 인간 생명의 본질인 유한성을 천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문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걸맞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문학 연구는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윤식의 노인성 문학 (A), (B) 유형²⁰⁾과도 같은 작위적인 설정 역시 노년문학 연구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분류기준을 제공하지만, 노년학의 유형별 통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노인성 문학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65세 이상 작가의 작품> ② <65세 이하의 작가가 노인을 다룬 작품>과 같은 기준은 작품 분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노년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은 ‘노년시’ 연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현정의 ①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 ② <발화 대상이 노년과 관계된 시>가 그렇다.²¹⁾ 이런 분류의 난점은 이현정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는데, 작품의 발화주체가 연령상 노년이라도 노년성과 무관할 수 있고, 발화대상이 노년과 관계 있더라도 단순한 소재적 차원이라면 노년성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현정은 “노년기에 쓴 모든 시가 노년시가 될 수 없고, 노년이 아닌 시인도 노년시를 쓸 수 있다”고 첨언함으로써 분류기준을 보정한다.²²⁾

김윤식과 김미현이 이미 사용했듯이, 노년을 연령대 외부로 확장하는

18) 김미현, 『웬 아이름 올드』, 김윤식·김미현 편,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282쪽.

19) 서형범은 세대론의 관점에서 노년문학을 새로운 문화환경에 조응하는 문학예술의 가능성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제21호,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참조.

20) 김윤식은 다소 즉흥적으로 ‘노인성 문학’ (A)형을 65세 이상의 작가가 쓰는 작품으로, (B)형을 65세 이하의 작가들이 노인성을 소재(주제)로 다루는 작품으로 설정한 바 있다.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편, 앞의 책, 250쪽.

21) 이현정, 앞의 글 참조.

22) 이현정, 앞의 글, 277쪽.

개념은 ‘노인성’이다. 노년문학은 바로 이러한 ‘노인성’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채택하되, 노인성의 개념을 단순히 연령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본질로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더해야 한다. ‘노인성’(노년성)은 연령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간의 유한성, 혹은 ‘말년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년성을 노년기에만 발현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한 노년문학은 노년학의 하위범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물론 노년학의 하위범주, 혹은 융합 연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학의 대상인 노년은 근본적으로 타자성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타자성의 자리란 ‘생명관리권력’의 통증 관리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년문학의 대립항은 인간의 말년성이며, 그것을 연령과 무관한 인간의 보편적 본질로 인식할 때, 노년문학은 노년이라는 연령층을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성찰하는 예술적 양식이 될 수 있다.

3. 육체와 정신의 ‘말년성’에 따른 노년문학의 4가지 양상

보파르는 ‘노년’에 관한 그의 에세이 첫머리에서 늙은 노인에 대한 싯다르타의 탄식을 소개한다. “오, 불행이로다. 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젊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만심에 취하여 늙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놀이며 즐거움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의 내 안에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도다.”²³⁾ 말년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싯다르타는 늙은 노인을 보는 순간 이미 늙어버렸다. 일반적으로 말년성은 육체로 한정하여 언급되지만, 정신 혹은 정서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고찰되어야 한다. 말년성이 청년의 정신 속에 쉽게 깃드는 까닭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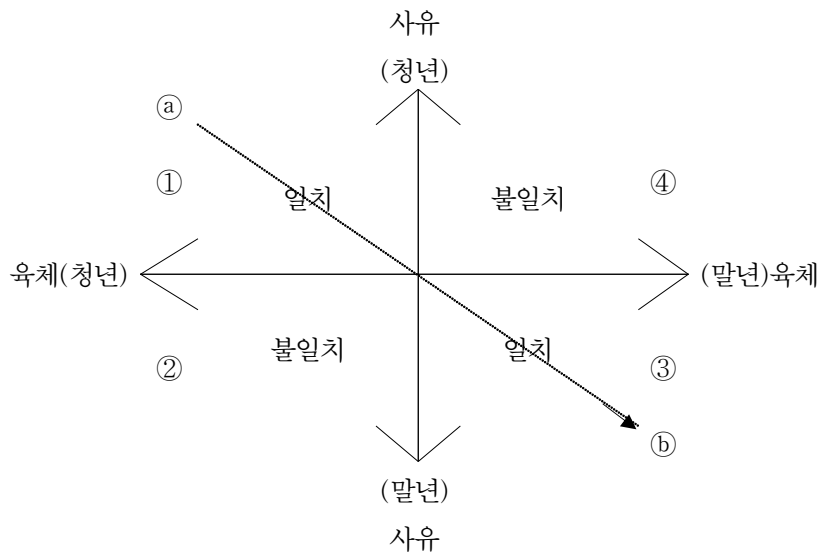
23) 시몬느 보파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1』, 책세상, 1994, 7쪽.

것이 지닌 불가피성, 혹은 필연성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늙고 죽는다. 늙음의 거부는 ‘때이른 죽음’(요절)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이 운명 때문에 말년성은 청년에게도 쉽게 찾아든다. 죽음과 늙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청년들마저 강렬하게 지배한다. 이 정서에 싸여 있는 한 청년의 정신은 곧 늙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내 안에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도다”라는 싯다르다의 탄식은 노년성이 청년을 잠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말년성은 육체와 정신 두 개의 영역에 깃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 육체의 말년성에 대해서만 언급해왔다면, 정신에 깃든 말년성까지도 성찰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기형도, 『정거장에서의 충고』, 『입속의 검은 잎』)라고 썼던 한 젊은 시인의 육성은 말년성이 인간 존재의 깊숙한 곳에 이미 터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조속하게도 이미 늙어버린 정신은 먼 미래의 노년과 죽음을 지금 현재의 순간으로 미리 당겨와 노년의 삶을 미리 살아간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는 인간의 사유 속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말년성은 노년만의 것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을 떠나 모든 인간의 본질적 사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년과 노년에 드러나는 말년성은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닌다. 육체의 노쇠화와 더불어 나타난 정신의 노쇠화는 자신의 삶이 다 했음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출현한다. 청년의 말년성은 일종의 예기불안에 압도당함으로써 촉발된 ‘유사-노년성’이다. 젊은 육체가 느끼는 말년과 늙은 육체가 느끼는 말년이 동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년의 말년성은 부인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청년의 말년성은 여전히 타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끔찍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보바르의 말을 떠올려보자. “20세, 40세에 노파가 된 나를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은 ‘타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²⁴⁾ 그것은 여전히 타자로서의 노년이다. 따라서 진정

한 말년성은 육체의 노쇠화를 노년의 주체가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혹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말년성은 육체의 노쇠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야 가능할 것이다. 생존의 마지막 순간에야 닿을 수 있는 극단적 노년성에 하나의 좌표를 설정한다면, 청년과 노년을 가로지르는 생애의 축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말년성이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위의 도식은 육체와 정신을 수직 교차시킴으로써 노년의 양상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 4가지 유형은 각각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확정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가지 각각의 유형 내에서도 4가지 유형들의 상호 충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이 과정이 진행된다. 다만, 이 도식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앞서 말한 극단적 말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③의 유형에 속하며, 그 안에

24) 시몬느 보바르, 위의 책, 13쪽.

서도 ‘b’ 위치에 해당할 것이다.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육체의 탄생과 죽음이다. 이것은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변수다.²⁵⁾ 그리고 여기에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반응하는 인간의 사유라는 종속변수²⁶⁾가 추가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육체의 <탄생→죽음>이라는 동물기계론적 방향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인간 사유의 개입으로 인해 <a→b>라는 대각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육체와 사유의 교차는 말년성의 양상으로서 대략 4가지 유형(①, ②, ③, ④)을 형성한다.

이 각각의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이질성이 존재함은 물론이며, 아래에서 언급하는 각 유형의 내용은 유형의 전체적인 방향성, 혹은 그 유형에 속하는 세부 연구 주제의 한 가능성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의 유형이 말년성의 지형학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기능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1) 근대의 노년 배제와 말년성의 축출: <육체=청년> & <사유=청년>

한국의 근대문학은 육체와 사유가 모두 젊었던 청년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통해서 언표된 ‘근대’[海]와 ‘소년(少年)’의 배치는 서구로부터 도래한 근대가 구세대의 것이 아니라 신세대의 것임을 역설한다. ‘소년’과 ‘청년’에 대한 술한 담론의 범람은

25) 물론 현대문명은 이 독립변수를 자본에 의한 과학기술로써 종속변수로 만들고자 하는 근본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 속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노화는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26) 육체적 노화에 따른 사유의 노화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종속변수라고 보기 힘들다. 죽음 직전까지 청년에 가까운 정신성을 소유한 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죽음을 강제적으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육체적 노화에 따른 죽음의 수용은 곧 노년의 수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의 노화는 종속성을 탈피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육체의 노화에서 비롯되는 종속변수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소년’이 근대의 잠재적 주체이고, ‘청년’이 근대의 당대성을 이끌 수 있는 세력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한다. 육체와 사유가 더없이 젊은 세대의 출현은 근대라는 새로운 대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는 한없이 척박한 것으로서 서구 지식의 지속적인 세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근대 초기의 청년들은 대부분 일본을 유학했으며, 이들의 새로운 문물 수용을 통해 한국에 서구의 근대가 이식될 수 있었다. 근대를 향한 대한제국의 의지 역시 높아서 서구 유학생을 선발해서 미국과 일본 등지로 보냈을 정도이며, 한국근대문학 또한 최남선,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의 일본유학생을 통해서 형성 가능했다.

그 자신 18세의 나이에 불과했던 최남선이 1908년 창간한 『소년』의 첫 일설(一說)이 “우리 대한(大韓)으로 하여금 소년(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려 하면 능(能)히 그 책임(責任)을 감당(勘當)하도록 그를 교도(教導)하여라.”²⁷⁾인 점을 상기해보라. ‘소년’이야말로 근대 기획의 잠재적 주체이자 미래의 세력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소년’의 성장은 곧 ‘청년’이다. 따라서 ‘소년’은 ‘청년’과 거의 다름없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학령(學齡) 구분에 따른 학생이라는 의미와 ‘네이션nation’에 의해 호출되는 정치적 주체의 의미가 공존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근대 초기의 ‘청년’(소년)은 연령적 의미를 넘어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성장과 완성”과 무관하지 않은 개념인 것이다.²⁸⁾ 이는 곧 네이션 확립의 전제 조건이 곧 청년 주체의 확립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노년²⁹⁾과의 대비를 거치지 않을 수

27) 최남선, 『창간사』, 『소년』 제1권, 1908.11,

28)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26쪽, 68쪽.

29) 근대 초기의 노년은 40살이 기준이 되기도 했다. 19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인들의 ‘노년회’ 가입 조건을 명시한 ‘노년회 규칙’을 보면, “회원의 나이는 사십세로부터 칠십오 세까지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년회 규칙』, 『권업신문』, 1912.12.22.

없었다. 1900년대 전후의 근대국가 건설의 기획 속에서 ‘노년⇔청년’의 대비 구도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³⁰⁾ ‘노인’은 근대국가의 기획 속에서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노인의 표상이 봉건과 전근대의 고루함에 귀속됨으로써 ‘신(新)’으로서의 청년의 표상이 근대로서의 시대정신을 장악해나갔던 것이다. 근대를 향한 열망이 점증할수록 구시대의 주체에 대한 혐오의 정도(程度)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십 이상은 다 죽어야겠다”는 소리가 일부 격앙된 청년의 입에서 유행할 정도였으며, “소년사상과 노년의 충돌”은 “사회진보의 상징”이자 오히려 축하할 일로 간주되기도 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은 존경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여전한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祖)父’의 위치는 강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은 ‘존경/혐오’의 이중적 대상으로서 근대의 청년 주체들에게 분열된 표상으로 존재했다.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는 높은 지혜와 경륜을 지닌 존재로서 존경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기획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체(遲滯)’를 유발하는 부정적 표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대 초기에 배제되지 않았던 노년이 존재했는데, 바로 청년같은 노년이다. “노인이란도 뜻있는 노인은 소년보다 일을 잘하고 소년이란도 뜻없는 소년은 노인보다도 일을 못할지라. 글나 이 말이 청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노인을 경계하는 말이니라.”³²⁾ 노년의 나태와 무위(無爲)에 대한 경계가 노년 스스로부터 촉발되기도 했다. 즉 노년이 청년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노인이로되 청년이니라. 힘쓰자 노인들아 힘쓰자 노인들아”³³⁾와 같은 노년의 계몽의식이 당대 ‘애국노인’의 표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년운동을 주도하는 노년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937년 이미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국민회’

30) 소영현, 앞의 책, 69쪽.

31) 『四十 以上을 盡殺?』, 『독립신문』, 1923.09.19.

32) 『노년회 취지서』, 『권업신문』, 1912.12.22.

33) 『노년회 취지서』, 『권업신문』, 1912.12.22.

(1908년 결성)는 “청년들을 좋은 길로 지도하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 노년에게 있다”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 노년의 사회가 진화로 자라서 청년들의 새 사회와 노년의 사회 사이에 두 사회의 중단 상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청년운동을 주장하는 우리 노년들의 고충이다.”라고 쓰고 있다.³⁴⁾

청년운동을 하는 노년의 형상은 정치사회적 나태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전통사회에서 후손들을 가르치는 데 쓰여졌던 노년의 지혜와 경륜이 근대적 방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노년의 형상은 근대를 표상하는 청년성으로 귀속되고 말 성질의 것이다. 1909년에 창립된 독립운동단체인 ‘국민회’가 1937년에 이르러 그 구성원들이 육체적으로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거부하고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있을 것을 다짐하는 데서도 이는 확인된다. 즉, 육체는 늙었으나 정신은 여전히 청년임을 주장하는 노년이다. 근대의 주체가 청년이라면, 근대의 노년 또한 청년성을 잃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주목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식민지 시기의 ‘애국노인’은 나태와 허무의 감정을 누릴 만한 정신적 여유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노년조차도 ‘청년’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근대 담론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요컨대, 한국근대문학에는 노년의 삶에 대한 집중적인 문학적 사유가 등장할 수 없었다. 모든 문학이 노년보다 청년의 형상을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한국의 근대문학은 그것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 노년의 삶을 다루는 이태준의 『복덕방』이 1937년에 발표되기는 했으나, 이태준의 나이가 삼십대 중반에 불과했고, 죽음에 이르러 철저히 자식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노인의 심리를 묘파한 염상섭(1897년생)의 『임중』이 발표된 것이 1949년, 염상섭의 나이가 이제 막 오십줄을 넘어서던 때였다. 이태준의 『복덕방』이 무용가 최승희의 개인적 삶에서 재채를 취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복덕방』에 투여된 작가의 노년에 대

34) 『청년운동』, 『국민보』, 1937.03.17.

한 사유가 작가의식의 중핵을 이룬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내밀한 의식으로부터 노년에 대한 문학적 사유가 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한국근대문학은 노년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소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근대시학의 탄생과 말년의 사유: <육체=청년> & <사유=말년>

한국 근대문학은 청년의 문학이기는 했으나, 그 심층에는 극심한 죽음 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다.³⁵⁾ 이 죽음의식의 근저에는 근대적 주체와 식민화 주체의 충돌이 일으킨 혼란과 충격이 자리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죽음의식의 원인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첫째가 일제 강점으로 인한 식민화 주체로서의 형성일 것이고, 둘째가 근대 일본을 경유한 서구 문물의 수용에 따른 근대적 주체의 형성이다. 이 두 가지 주체는 동시에 형성되었으며, 그 선후(先後)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란 무의미한 일에 해당한다. 한국의 근대가 식민성과 결합되어 있는 사정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두 주체는 하나로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조선의 근대화는 곧 식민화와 등가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대적 주체화가 철저하면 할수록 그것은 곧 친일을 향해 가거나 고작 식민지 주체로 귀결되고 만다.

한국 근대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근대로의 진입 과정에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필연적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근대의 중요한 현상이었던 내면의 발견과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근대의 직선적인 세계관은 순환론적 사유가 아닌 종말론적 사유를 더욱 강화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직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근대 계몽기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35) 김억이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번역 소개한 『오뇌의 무도』는 ‘죽음’의 노래가 자주 눈에 띈다. 김억의 창작 시집인 『해파리의 노래』에도 “죽음이란 잠인가/ 꿈도 엮는 새까만 잠인가?/ 그러치 안으면 꿈인가/ 색깔한 잠속에 생기는 밝은 꿈인가?/ 우리들은 그것을 몰은다, 알수가 없다./ 그러기에 죽음이란다./ 그것이 죽음이란다.”(『죽음』)와 같은 진술로 가득하다.

혁명은 인류의 진보적 세계관과 더불어 직선적인 역사의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인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개별적 주체들은 직선적 세계관 속에서 뚜렷이 부상한 죽음에의 불안을 ‘개별적’으로 감당해야했다. 푸코가 근대문명에서 개별성에 대한 경험이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³⁶⁾ 근대의 개별적 주체들이 죽음을 극복한 방식은 에드가 모랭이 말했던 ‘시민적 불멸성’이라는 관념의 창안을 통해서였다.³⁷⁾

이 관념의 주술성은 ‘상상의 공동체’(베네딕트 앤더스)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병사의 무덤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병사의 죽음은 개별적 주체로서의 죽음에 머물지 않고, 이미 시민 혹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불멸의 신비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안식처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은 식민지의 낙락으로 빠져들었고, ‘상상의 공동체’는 일본이라는 제국의 검열과 감시 아래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식민화 주체로서의 정체성만이 강요되었다.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은 주체의 개별성에 따른 죽음의 불안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초기의 식민지 문단에 죽음이 횡행했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소월의 죽음의식은 개인을 통해 민족의 집단무의식을 보여주었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장희, 이상화, 박종화, 박영희, 홍사용 등이 활동했던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죽음 의식 역시 식민지 근대를 관통했던 지식인들의 개아(個我)로서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36) 푸코는 비이성에 대한 경험이 심리학을 탄생시켜듯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경험으로써 개인에 대한 과학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제차 “서구 근대문명에서 개별성(individualité)에 대한 경험은 분명 죽음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설명한다. 미셸 푸코,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인간사랑, 1993, 319쪽.

37) 에드가 모랭, 김명숙 역, 『인간과 죽음』, 동문선, 2000, 50-51쪽.

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을 점령했던 죽음의 미학은 그동안 3·1혁명의 실패와 식민지 시대의 절망으로 인해 근대문학의 한 가운데로 침습(浸濕)한 그 ‘죽음’에 대한 미학적 수용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래서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은 병적 감상주의적 경향으로, 그리고 ‘죽음’에 잇달은 ‘꿈’, ‘진리’ 등의 시어는 이상주의적 경향의 근거로 간주되기도 했다.³⁸⁾ ‘죽음’은 식민지 지식인의 병들고 황폐화된 내면을, ‘꿈’과 ‘진리’는 죽음 너머의 이상 세계를 향한 열망을 함축하는 시어로 이해된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근래에는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을 대체로 미적 근대성과 미적 주체의 확립 과정으로 보고 있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시대는 근대적 인식의 내면화와 미적 이데올로기의 정립이 갖추어진 시기”라거나,³⁹⁾ “동인지 문학이 발명한 미적 주체는 근대 자아의 내면 발견이자 새로운 미적 장의 제기”였으며, “한국문학에 있어서 근대자아의 현시는 동인지 문학을 통해 내적 가능성과 기반을 얻었다”는 진술이 그것이다.⁴⁰⁾ 1920년대 동인지 문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근대성과 미적 주체성을 근대적 주체와 자율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미학적으로 수용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자 그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주체가 미적 주체로 변환되는 과정은 근대의 이식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미적 주체의 감수성은 내재적 발생물이 아니라, 다소 지나치게 말하자면, 박래품으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감수성을, 근대의 미학적 수용과 제도화라는 관점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개별자로서 시인 내면의 실재에 육박한 감성의 실체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언어가 비록 서구로부터 수입된 관념에 지나지 않은 것일지

38)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제4장 참조.

39)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 박사논문, 2002, 218쪽.

40) 황호덕, 『1920년대초 동인지 문학의 성격과 미적 주체 담론』,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248쪽.

라도, “매우 실제적이고, 개별화된 한 개인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태천은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을 장악한 영원, 죽음, 진리, 꿈 등을 중심으로 한 시적 체험은 그들의 실질적인 정서체험의 문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 꿈, 진리 등의 시어가 “근대적 인식의 한 발현대로서 개인의 내면 형성에 일조”하며, “미적 체험을 통한 내면의 발견이 근대적 교양, 즉 문명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⁴¹⁾ 그리하여 근대를 장악한 미적 주체의 내면을 장악한 죽음, 꿈, 진리 등의 시어가 갖는 감성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는 여전히 남게 된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을 장악한 죽음, 꿈, 진리 등에서 중심이 되는 시어는 죽음이다. 식민지적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 차원의 꿈과 진리에 이르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식민지 주체의 현실에 일차적으로 침투하는 비극적 정서에 육박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현실의 부정이면서 현실 너머의 꿈과 진리를 향한 비극적 열망을 내포한다. 죽음은 서구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병적 퇴행의 증상으로서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주체를 장악한 정서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저류를 흐르고 있는 심층적인 무의식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전통에의 부정이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운 아버지를 찾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이 임화와 이상을 통해 일관되게 천착했듯이, 근대문학은 새로운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었다. “朝鮮文學은 오직 將來가 有할 뿐이요, 過去는 無하다”⁴²⁾고 했던 이광수의 진술은 근대 식민지 지식인의 아버지 부정에 대한 선언이다. 실제로 한국 근대 문학에서는 “부모(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특히 강조되었던 부모-자식의 종적인 질서”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일이 전면화된다.⁴³⁾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근대

41) 여태천, 『미적 근대와 언어의 형식』, 서정시학, 2007, 148쪽, 179쪽.

42)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매일신보』(1916.11.10~11.23),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비평사(資料 I)』, 한국학술정보, 2004, 64쪽.

로의 모험은 이전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새로운 아버지를 향한 거친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 식민지 근대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버지를 찾기가 끝없이 지연되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 제국주의의 근대가 아버지의 권력을 계승하고 강화하는 영토의 확장으로서, 다시 말해 귀환할 곳이 있는 모험이었다면, 식민지 조선의 근대는 돌아갈 곳도 없고 나아갈 곳도 없는 그야말로 기약없는 방향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껏 식민의 골방(“침실”)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근대를 향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모험에는 이중의 죄의식이 동반되고 있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먼 길을 떠나는 만족감의 이면에는 죄의식이 결부된다. 모험을 통한 성취와 성공의 본질에는 곧 아버지를 극복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이 은폐되어 있으며, 그 결과 모험을 통한 성취는 만족감과 더불어 죄의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⁴⁴⁾ 식민지 근대의 죄의식이 서구 근대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근대적 주체와 식민지 주체의 상호 착종 때문이다. 이를 다시 프로이트식으로 말한다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살해당한 ‘아버지’(일제에 병합된 조선)를 다시 한번 제 머릿속으로 살해하는 참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중의 죽임을 당한 아버지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은 부친살해에서 비롯된 죄의식에 잠식당하고 만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이면에는 봉건적 전통이라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의식이 죽음의 딱리를 들고 있다. 이 죽음의식이 대일항쟁의 충동으로 정치적 진화를 거듭한 예외적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예술가들의 내면이란 대개 현실을 넘어선 환상에 경사되거나 끝끝내 환상을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의 결핍으로 인해 우울과 무기력에 친화적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과 예술가의 내면은 쉽게 중첩된다. 1920년대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의 시인들은 대개 죽음과 친화적이었다.⁴⁵⁾ 근대 초기의 시인

43)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45쪽.

44)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467쪽.

들은 아버를 죽이고, 스스로 아버가 되지도 못하고, 새로운 아버를 찾을 수도 없었던 결핍으로 가득한 공백의 공간에 머물렀다. 이 죽음의식이 곧 정신적 말년의 표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는 이미 죽음을 지향하고 있는 근대 초기의 시인들은 이미 말년(晩年)의 정서를 체득하고 있었다.⁴⁶⁾ 이들 가운데 몇몇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죽어가기도 했고,⁴⁷⁾ 말년의 사유를 벗어나 근대의 거친 항해를 계속하기도 했으며, 문단에서 영영 사라진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 문학의 한 심층에 퇴적된 죽음은 근대 문인들에게 각인된 말년성(末年性)을 드러내준다. 이들은 근대의 출발선부터 이미 늙어버린 시인들이었던 것이다.

3) 고령화 사회와 노년문학의 소명: <육체=말년> & <사유=말년>

육체와 사유가 말년에 이른 노년문학은 말년성의 지형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근대문학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문학텍스트는 출현할 수가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질병으로 인한 요절, 납북, 월북, 숙청 등 역사의 비극적인 회랑 속에서 한국근대문인들이 말년의 육체에 도달하기란 극히 힘들었기 때문이다. 육체의 말년과 더불어 사유의 말년을 드러내는 문학의 도래는 1960-70년대에 이르러서

45) 이는 비단 근대시학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천정환은 “한국 근대문학 자체가 새로운 죽음충동과 함께 성립된 것”이며, “초기 근대소설=자살론”이라 해도 좋을 만큼 초기 근대소설의 ‘자아’는 우울과 허무한 자의식에 휩싸여 있고 자살생각에 대한 표백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한다. 천정환, 『자살론』, 문학동네, 2013, 88쪽.

46) 필자는 최근에 근대 초기 이후 1930년대 문인들의 조로성을 ‘말년성’의 관점에서 천착하여, 『조로문인(早老文人) 비판과 정지용 시의 말년성』(『한국민족문화』 66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47) 김소월, 이장희, 이상, 현진건, 김유정, 나도향 등의 요절 문인들의 사유 속에서 말년성을 발견하는 일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실제의 자기 죽음을 목도하는 과정을 겪었으므로, 이들의 말년성은 무의식이나 문학적 현실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인의 생활현실로서의 실제적 차원에도 닿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 가능했다. 이후 노년층에 이른 작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와 정신의 말년성을 드러내는 문학 텍스트 역시 증가했던 것이다. 최근의 연구물도 대부분 이 유형의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노년층이 아닌 작가들의 노년 문학 텍스트까지 더하면 노년문학의 양적·질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비노년층 작가들의 노년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인데, 노년의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노인고독사, 노인 빈곤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비노년층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젊은 작가들의 노년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역시 노인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달리 육체의 말년에 도달한 작가층은 노년을 자신의 실존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노년의 내적 필진성(verisimilitude)을 충실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의 노년문학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작가의 내적 사유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작가의 말년성이 실존의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년은 죽음과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노년에 대한 거리감은 죽음에 대한 거리감과 유사하다. 에드가 모랭이 말하듯, “죽음의 전위(前衛) 그것은 늙어감이고, 그래서 늙어감을 안다는 것은 또한 죽음을 안다는 것이 된다.”⁴⁸⁾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는 죽음을 이기기 위한 총력전을 감행한다. 자본주의의 축적 욕망의 심층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며, 청년이 자본주의의 표상이 된다. “자본주의는 계급투쟁과 함께 확대되고 있었고, 청년은 어디에서도 계급 투쟁의 첫번째 담당자”였던 만큼, 청년의 표상은 “산업자본주의와 궤를 함께 하며 전세계에 침투”했던 것이다.⁴⁹⁾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 이후 노년의 고독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48) 에드가 모랭, 앞의 책, 352쪽.

49) 三浦雅士, 『青春の終焉』, 講談社, 2002, 10쪽.

없다. 노년은 질병으로 치부되기 시작했고 위생학과 공중보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인본주의의 신화만이 노년의 휴머니티를 가까스로 지탱해준다.

노년은 배제와 부정의 대상이고 노년 스스로도 자신의 노화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노년의 상황에 적응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도 흡사하다.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노화에 대한 것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말년성의 정점은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노년에 대한 사유는 죽음에의 사유로 귀결되기 마련이며, 노년의 실존이란 곧 죽어가는 존재로서의 실존이다. 말년성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인간 내면의 사태란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허무’,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소진되는 평온한 ‘초월’일 것이다. 말년성은 사실상 이 두 태도를 근본적인 기저로 삼는다.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사유는 대개 삶에 대한 허무에 사로잡히거나 초월을 지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⁵⁰⁾

노년문학은 노년이 겪는 삶의 허무와 정서적 고통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자기 생애 속 청년뿐만 아니라 타자의 청년과 자신의 노년 사이에 내재한 간극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년문학의 초월의식은 개별자로서의 자아를 우주적 보편자에 합일시키는 정신적 기제를 통해서 획득한다. ‘노년문학’이라는 장르적 별칭을 달지 않더라도, 허무와 초월은 문학의 오랜 주제였다. 허무의식은 삶의 모든 가치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초월의식은 현실도피의 고상한 변이 형태에

50) 한국현대노년시를 일찍이 선제적으로 연구한 강신주는 노년기 시의 특성을 모성으로의 회귀, 고독과 허무, 자아성찰 혹은 깨달음으로 정리하고 있다. 노년의식의 부정적 양상이 고독과 허무라면 긍정적 양상은 화해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강신주는 ‘초월/집착’ 혹은 ‘수용/거부’의 대립쌍으로 정리한 바 있다. 강신주, 『노년기 시의 특성 연구』,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 의식』, 백남문화사, 1996; 강신주, 『초월과 집착, 수용과 거부, 그 이중성의 편린』, 『한국현대시의 연구』, 월인, 2005.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초월의 평온함은 노년의 현실성을 탈각시키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보봐르의 비판을 수용한다면 “노년이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편견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⁵¹⁾ 노년문학의 감성적 혹은 형이상학적 사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승인을 받은 형태, 다시말해 용인될 수 없는 정서와 사유를 미학적으로 순치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노년의 생태(生態)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러한 작업은 노년층의 작가이든 아니든 중요한 문학적 소명으로 남는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가 지향하는 무통 상태, 혹은 ‘사회의 내적 진정화’(Pazifizierung)⁵²⁾를 거부하고 우리 삶의 실재를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4) 시의성을 거스르는 말년의 정치학: <육체=말년> & <사유=청년>

육체가 말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자의식은 여전히 청년을 지향한다. 젊음에 관한 노인의 나르시시즘은 보편적이다. “반세기 동안 나는 줄곧 스무살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횡령을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⁵³⁾ 이 진술은 프랑스 소설가 주앙도(M. Jouhandeau, 1888-1979)의 것이다. 마지막 포기의 순간에 접어들기 전까지 노년의 사유는 여전히 청년에 붙들려 있다. 젊은 시절에 관한 기억의 총체는 여전히 스스로를 젊은이로 간주하는 관성을 지닌다.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노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나, 육체의 노화에 분노하고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화를 인정했을지라도 자신의 정신은 여전히 청년의 것으로 간주하고자 경향은 생명의 본능에 충실한 결과다.

51) 시몬느 보봐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2』, 책세상, 1994, 286쪽.

52) 노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1998, 15쪽.

53) 시몬느 보봐르, 앞의 책, 22쪽.

육체가 말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사유를 유지하는 예술적 경향에 대해서는 일찍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목한 바 있는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를 ‘말년의 양식’이라고 불렀다.⁵⁴⁾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년성’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시의성’을 언급한다. ‘시의성’이란 “시간에 맞게 늙어가는 것”인데, 육체의 늙음과 더불어 삶의 태도와 사유 역시 그에 따르는 것이 ‘시의성’이다. ‘시의성’에 충실한 말년은 연륜과 지혜, 성숙한 기운, 화해와 평온함의 기운으로 충일하다. 그러나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목한 것은 “조화와 해결의 징표가 아니라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는 모순”으로서의 말년이며, “평온하지 않은 긴장”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저항”하는 “말년의 양식”이다.⁵⁵⁾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윤리적이다. 육체의 쇠퇴라는 ‘시의성’에 따라 노년의 예술가가 조화, 화해, 평온, 궁극적으로 평정과 초월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회 모순과 정치 갈등은 한낱 덧없고 쓸데없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노년의 조화, 평정, 통합, 초월 등은 지배권력의 특권과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뿐이다. 이런 논리라면 육체의 말년에 이른 노년에게도 청년의 저항성이 정치적으로 내발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드워드 사이드는 노년의 청년성을 실천한 예술가들을 조명함으로써 예술가의 말년성에 비타협, 난국, 긴장, 저항 등의 요소를 기입한다. 그는 아도르노의 말을 빌려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의 작품은 파국”⁵⁶⁾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때 예술의 파국은 조화로운 종합에의 지향이 아니

54) 에드워드 사이드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의 ‘말년의 양식’에 주목한 문예지의 특집으로 『오늘의 문예비평』의 ‘한국문학과 말년의 양식’(2008. 가을)이 있다. 이 특집에서 주목할 만한 글은 황국명의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사유』, 김승환의 『김윤식·유종호·김우창의 말년』이다.

55) 에드워드 사이드, 장호연 역,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마티, 2008, 28-31쪽.

56) 에드워드 사이드, 앞의 책, 226쪽.

라, 분열의 원동력인 것이다.

노년의 청년성 회복은 생물학적 ‘시의성’을 이겨내고자 하는 생명의 본능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 관습의 ‘시의성’을 거부하는 대사회적 투쟁의 의미를 지닌다. 심각한 육체와 정신의 쇠락에 이르지 않은 경우, 노년의 실존적 감각은 여전히 청년성으로 가득하며, 이 실존성은 생물학적·사회학적 욕망의 응결체다. 육체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삶을 지배하는 청년의 리비도는 노년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노년의 청년성이 사회적 의제를 향하게 될 때 노년의 정치학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년의 정치학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길은 따로 있다. 노년의 정치성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추구한 가치인 진보성을 항상 획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노년의 정치성은 보수화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체의 쇠퇴→ 사회적 자아의 상실→ 자아의 빈곤→정치 이념과의 동일시’를 따라 노년의 정치성은 강화된다. 노년의 정치 이념은 그가 살아온 생애와 등가적이다. 노년의 빈곤한 주체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정치이념에 스스로를 온전히 투여한다. 라캉의 논리를 빌리자면, 대타자의 결여를 부인하고 대타자의 한 귀퉁이에 접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착성은 오늘날 극우 노인의 비정상성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극좌 노인 역시 극우 노인 정치와 같은 메커니즘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극좌 노인은 극우 노인에 비해 매우 희귀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거론되기는 힘들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의 정치성’은 ‘육체의 쇠퇴→ 사회적 자아의 상실→ 자아의 빈곤→정치 이념과의 동일시’라는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육체와 자아의 쇠락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 피억압의 민중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서의 정치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의 정치성이다. 개인의 평온과 조화로움, 그리고 초월의 텅빈 포만감은 탈현실화의 나르시시즘을 구성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인류가 온힘을 다해 찾아낸 정신적 메커니즘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기에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나 현실의 실재를 볼 것을 주문한다. 나르시시즘을 벗어나 눈앞의 현실을 목격하는 순간, 다시 긴장과 분노, 연민과 사랑이 노년의 정치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의 정치성이다.

다시 말해,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정치성’은 초월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의 회귀에 기반한다. 이를 김상환은 ‘회귀적 초월’⁵⁷⁾이라 규정한다. 바 있는데,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의 초월이 생물학적·사회학적 ‘시의성’을 따른 초월이라면, ‘차안’에서 ‘피안’으로의 ‘회귀적 초월’은 그러한 시의성을 거스른 것이다. 방향을 전도시키는 힘은 ‘자기애’의 리비도가 아니라, ‘자기애’에 기반한 ‘대상에’의 리비도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진정한 말년의 정치는 자아와 육체의 빈곤을 대리보충하고자 하는 자기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연민과 사랑(대상에의 리비도)을 윤리적 자질로 삼고 있는 것이다.

노년의 정치학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규명해야 할 대상은 노년에 이른 작가들이 보이는 정치의식이다. 노년의 정치의식은 ‘청년→노년’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검토할 때 입체적 규명이 가능한데, 문청(文靑) 시기의 진보적 문인이 노화의 경로를 따라 보수화되는 과정은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한 장을 차지한 1960-70년대의 문인들 중 보수화의 길을 따라간 이들은 적지 않다. 대표적 문인이 김지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보수화는 그의 독특한 생명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올려’라는 초월적 관념에 기댄 그의 생명사상은 문청 시기의 그의 정치성을 변질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갈등이 그의 생명사상에서는 손쉬운 질서와 조화를 획득함으로써 탈현실화의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특히 시인들에

57)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김수영론』, 민음사, 2000, 51쪽.

게서 이러한 경향은 매우 농후한데, 보수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문창 시기와 달리 조화와 질서, 그리고 초월의식에 물드는 시적 경향은 무척 혼하다. 시인의 말년이 문학적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의 성’을 거스르는 ‘말년의 정치성’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한국의 노년문학이 사회학의 하위학문인 노년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년학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의 불안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의 내적 진정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대의 통치술에 복무하고 있는데, 푸코에 관점에 따르면, 노년학은 ‘노년’을 ‘생명관리권력’(biopower)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노년문학의 중요한 개념인 ‘노년’을 규정하는 신체적 연령이라는 단선적인 기준을 벗어나, ‘노년’을 규정하는 또다른 기준으로의 정신성을 주목하기 위해 ‘말년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말년성’은 신체의 연령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말년성’은 죽음을 마주보는 정서적 개념으로서 나이와 무관한 개념이다.

이 글은 ‘육체’와 ‘정신’의 두 개 축의 교차를 통해서 말년성의 지형학을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① <육체=청년> & <사유=청년>, ② <육체=청년> & <사유=말년>, ③ <육체=말년> & <사유=말년>, ④ <육체=말년> & <사유=청년>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년문학은 ③의 유형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신체적 연령에 근거한 노년문학 연구는 의도와는 다르게 노년을 또다시 타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말년성’의 개념을 통해서 신체적 연령을 넘어서는

노년문학의 새로운 지형학을 구성하고 했으며, ②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노년문학 연구를 ①, ③, ④의 지평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①의 유형은 노년문학이 1960-70년대에 출현했다는 관점에 머물기보다는 노년이 근대문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억압되고 배제되어온 사정에 주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②의 유형은 노년이 당연한 죽음의 문제가 비단 노년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데, ‘말년성’이 신체적 연령에 근거한 노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늙어버린 비노년(청년)들 역시 직면하는 문제임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④의 유형은 노년의 정치의식을 규명하는 유효한 인식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기존의 노년문학 연구가 정치적 맥락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③의 유형에 주목해왔던 기존의 노년문학 연구는 ②·④유형과 함께 파악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말년성이 ③의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불문한 인간 보편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노년의 정신이 청년성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③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말년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개의 축을 교차시킴으로써 한국문현대문학을 규명해낼 수 있는 ‘말년성’의 지형학을 구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년성’의 지형학은 노년문학을 연구하되, 노년을 타자화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지형학 이면서, 근본적으로는 노년문학의 좁은 범주를 벗어나 ‘말년성’이라는 죽음의식과, 그것에 반응하는 문학의 정신성을 통해 한국현대문학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론(試論)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기반한 세부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면서, 지금까지 노년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년문학 연구가 보다 다양한 지평 속에서 풍성한 논의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소년』, 『권업신문』, 『국민보』, 『독립신문』

【논저】

-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비평사(資料 I)』, 한국학술정보, 2004.
-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김수영론』, 민음사, 2000.
- 김윤식·김미현 편,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 박사논문, 2002.
- 김희경,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 『한국문화인류학』 제47집 3권,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 129-159쪽.
-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화학회, 2008, 501-536쪽.
- 문홍술, 「고령사회와 노인문학의 과제」, 『유심』 2014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4.
-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 여태천, 『미적 근대와 언어의 형식』, 서정시학, 2007.
- 유성호, 「한국문학의 심층으로서의 노경의 시학」, 『문학·선』, 2013.
- 윤혜진, 「노화의 정치경제학 이론(political economy of aging theory)을 적용한 노년기 문화예술 경험의 다학제적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2집,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5, 243-255쪽.
-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003, 45쪽.
- 이현정,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 『한국시학연구』 제45호, 한국시학회, 2016, 247-284쪽.
- 장철준·김주현,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노인연령기준 상향 방안 연

- 구, 『법학논총』 40권4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16, 39-64쪽.
- 천정환, 『자살론』, 문학동네, 2013.
- 최명숙, 『한국 현대노년소설 연구』, 경원대박사논문, 2005, 12쪽.
- 최은영·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권,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2012, 165-185쪽.
- 황호덕, 『1920년대초 동인지 문학의 성격과 미적 주체 담론』,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 三浦雅士, 『青春の終焉』, 講談社, 2002.
- 노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1998.
- 모리오카 마사히로, 이창익·조성운 역, 『무통문명』, 모멘토, 2005.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나남, 2004.
- 미셸 푸코,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인간사랑, 1993.
- 시몬느 보바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1』, 책세상, 1994.
- 시몬느 보바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2』, 책세상, 1994.
- 에드가 모랭, 김명숙 역, 『인간과 죽음』, 동문선, 2000.
- 에드워드 사이드, 장호연 역,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마티, 2008.
- 유발 하라리,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 장 보드리야르, 정연복 역, 『섹스의 황도』, 술, 199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 책들, 2003.
- 팻 테인 편, 안병직 역, 『노인의 역사』, 글항아리, 2012.

<Abstract>

Korean Old-age Literature and Topography of Lateness

Park, Dae-hyun

This paper starts with a critique of the fact that the studies on Korean old-age Literature are limited to the viewpoint of sociology, a sub-discipline of sociology. Because studies on old age literature, relying on gerontology, tended to fall into object of Foucault's "biopower".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lateness" to go beyond the monotonic standards of physical age. 'Lateness' is an emotional concept that faces death, and is not related to age. Therefore, "old age" should be shifted to the position of existence encompassing youth and old age, not the position of the other who is excluded from youth.

The topography of 'lateness' consists of four types. ① <body = youthness> & <mind = youthness>, ②<body = youthness> & <mind = lateness>, ③ <body = lateness> & <mind = lateness>, ④ <body = lateness> & <mind = youthness>. The four types created by crossing the two axes of body and mind constitute the topography of the "lateness" that can see the Korean old-age literature. This is a topography designed to get old age out of the other's position. At the same time, it fundamentally goes beyond the narrow category of old-age literature, and corresponds to a methodological viewpoint that

* Dong-a University

seeks to identify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rough the death consciousness of 'lateness' and the spirituality of literature responding to 'lateness.

Key Words: lateness, old age, Korean old-age literature, death, youth, gerontology

■ 논문접수 : 2018년 3월 27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7일

■ 게재 확정 : 2018년 8월 17일

